www.hyokwang.or.kr

Vol 34
2021 효광원

한마루

한마루는 "남보다 훨씬 뛰어난, 걸출하다" 는 순 우리말입니다.

꿈과 희망과 사랑이 넘치는 곳! 여기는 효광원입니다!

효광원

CONTENTS
목차

HYOKANG
Protection and Treatment Facilites

03 **교사 글_** 노학용 교사

05 **아동들의 글_** 유O재, 김O욱

08 **퇴소자의 글_** 윤O민

09 **2021기획사업**
- 2021 (나눔과꿈) 청소년 자립지원 및 지역사회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더블하트 또바기)
- 2021 청소년과 원가족의 행복한 추억만들기 여행프로젝트(위드캠프)
- 2021 밥상머리 작은기적 요리교실
- 2021 특수차량 25인승 버스 지원사업
- 2021 정신·심리장애아동 치료비 지원 사업

12 **효광원 주요 프로그램**

13 **효광원 집단 상담 프로그램**

14 **효우리 이모저모**

16 **효광원 활동 모습**

21 **따뜻한 손길, 아름다운 마음**

23 **후원금 세입·세출 총괄내역**

한마루 Vol 34

발행처 보호치료시설 효광원 **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산내로 1305번길 48(낭월동 399번지)
전화 042.271.7053 **팩스** 042.271.5775 **지도신부** 김현 마태오 **발행인** 김정엽 **편집** 남광규
E-mail hkw7053@hanmail.net **홈페이지** www.hyokwang.or.kr **디자인** 창문(042.254.8977)

늦은 출발, 그리고 즐거운 일상

글 | 노학용 교사

이렇게 저렇게 살아오다 보니 어느덧 중년이 되어가는 제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도 어린 시절이 또렷하게 기억이 나는데 세월은 그 시절을 뒤로 남기고 저를 이곳 효광원까지 오게 만들었습니다. 2019년 1월 1일 저는 효광원에 야간보안 교사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아직은 어리지만, 어른들만큼 체격이 성장한 아이들이 보였습니다. 말도 잘하고, 따지기도 잘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거짓말도 너무나 태연스럽게 하는 아이들이 눈앞에 있었지만, 저는 오히려 즐거운 흥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아가 아직 다 성장하지 못한 시기이기도 하고 반항기일 나이에 어쩌면 당연한 모습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아이들과 부딪히는 것이 저에게는 흥미로운 일로 생각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아이들에게 어느 때는 제가 지기도 하고, 어느 때는 이기기도 하며 승패를 가르는 운동경기처럼 엎치락뒤치락하는 하루하루가 늘 새로운 경험을 쌓게 하였습니다. 2년을 야간 보안을 하면서도 언제나 마음은 생활지도원에 지원하여 이곳 아이들의 담임을 맡아 지도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한 순간도 지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행운이었겠지만, 드디어 저에게도 기회가 왔습니다. 결국 생활지도원에 지원하여 지금 5명의 아이들의 담임이 되어 아이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조언처럼 결코 만만하지만은 않은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 하루는 또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설렘으로 출근을 합니다. 어쩌면 이런 삶이 진짜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조금이겠지만 아이들의 인생 속에 끼어들어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데에 작은 긍정의 변화라도 줄 수 있다면 이 또한 의미가 있는 일이 아닐지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들을 해 봅니다. '제가 이 아이들처럼 어렸을 때, 제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그때 저에게 이야기 나누며 조언해 줄 수 있었던 분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말입니다. 혼자 판단하고 혼자 행동해서 지내온 시간들을 생각해보면, 이 아이들에게는 작은 힘이라도 되어 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묻는 말에만 대답하던 아이들이 어느새 제 옆에 바짝 붙어 팔짱을 끼고 웃으며 반겨줄 때는 저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집니다. 비록 항상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부대끼며 문제를 풀어가는 것도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입소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고통을 덜 받을 것입니다. 올바른 길로 가는 작은 일들은 기도하고 사랑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막의 은수자 까를로 까레또

하면서 두렵고 어둡기만 했던 아이들의 얼굴이 조금씩 밝아지고 긍정적인 언행과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볼 때면 제 마음도 흐뭇해지는 감정을 느낍니다. 아이들은 이곳에서 많은 아동들과 선생님들 속에서 보고, 느끼고, 배우는 과정을 겪으며 여러 경험들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어두웠던 기억들이 있겠지만, 이런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희망을 가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효광원은 언제나 분주하게 돌아갑니다.

새로 들어오는 신입 아동들과 퇴소하는 아동들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되풀이되어 들어오고 나가는 곳입니다. 새로운 씨앗을 뿌려 거두기까지 모든 관계자분들이 온힘을 다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비로소 우리가 서로 믿음을 가지고 관계를 만들어 갈 때 효광원의 현재보다 멋지고 활기찬 미래가 될 것입니다.

지혜는 진리 속에만 존재합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

다시 기회를 주신 판사님에게

글 | 유O재

안녕 효우리 바리스타 반 효우미 유O 재입니다. 저는 2021년 3월 2일 5 · 6호 처분을 받고서 이곳 효광원에 입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땐 한없이 철이 없어서 너무 들뜬 상태로 신입반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신입반 2주를 생활하면서 판사님을 원망도 하고 한편으론 미워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2주간에 신입반 생활이 끝나고 저는 본방으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본방을 배정받은지 얼마가 지나지 않아 대전가정법원 판사님이 방문을 하셨습니다. 저는 원망하는 마음으로 판사님을 기다렸지만 판사님을 맞이하였을 땐 판사님이 절 보며 인사를 해주시고 웃어주시며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다른 쪽으로 하였더니 판사님이 원망스럽기보단 저를 잘 알고 기회를 주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담임선생님인 한승우 선생님을 봤습니다. 담임선생님께서 온갖 좋은 말씀을 해주시며 격려를 해주셔서 제2의 아버지가 아닌 6개월간 진짜 제 아버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후 효광원 선생님들은 절 따뜻하게 맞이해주시며 모닝미팅이라는 것을 알려주셔서 모닝미팅을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80명이 넘는 효우리들 앞에서 제 생각을 말하는 것이 처음에는 부끄럽고 용기가 없어 못했지만 얼마 후부터 열심히 참여를 하며 제 의견과 생각을 당당히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저는 바리스타 자격증을 준비하며 성실하게 생활을 하였습니다. 가끔 지치고 힘들어서 남들에게 말 못 할 고민이 생기면 제 아버지인 한승우 선생님이 묵묵히 다가오셔서 저를 달래며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그 덕에 저는 3개월 동안 스스로를 컨트롤하는 방법을 배웠고 제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이기며 그 결과로 새로운 인생을 선물받았고 덕분에 판사님에 대한 제 생각도 변했습니다.

밉고 원망스럽기만 했던 제 생각이 이제는 판사님 덕에 스스로 변하는 결과를 얻고 판사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스스로 변한 탓에 3, 4, 5월을 지나 어느덧 6월이 되었습니다.

저는 남은 기간 동안 성실하게 규칙을 지키며 살 것이고 더는 사고를 치지 않으며 퇴소 후에 책임감을 가지며 생활을 할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방황을 하며 나쁜 친구들과 어울렸던 날들을 후회하며 보호관찰을 성실히 받을 생각입니다. 또한 저를 변하게 해주신 담임선생님, 국장님, 수녀님, 신부님에게도 실망을 시키지 않도록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판사님, 효광원 선생님들 모두 감사드리고 이곳 효광원 생활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착한 일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생각하는 데는 어른이 되십시오. -성 바오로 사도

흔들리며 피는 꽃

글 | 김ㅇ욱

제가 이번에 소식지에 글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와서 이렇게 쓰게 되었는데요, 사실 제가 평소에 글 쓰는 취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글을 잘 쓰는 편도 아니라 좀 망설였는데 저의 담임선생님께서 저에게 뭐든지 열심히 해보라고 하셨던 말이 문득 떠올라서 쓰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제 효광원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입소 초반 한달 동안은 묵묵히 조용하게 잘 지내다가 그 후로 적응도 하고 많이 들뜬 나머지 그때부터 저의 생활은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선생님들께 그다지 좋지 않은 이미지로 효광원에서 생활한지 5개월이 다 돼 갈 때쯤 추가 건이 송치되고 게다가 효광원에서의 생활도 좋지 않다는 이유로 판사님께서 저를 소환하셨습니다. 판사님이 어떤 결정을 하실지 많이 무섭고 두려웠고 여태껏 생활을 못 했던 게 그제야 막 후회가 됐습니다. 그렇게 후회를 하면서 이제 정신을 좀 바짝 차리고 다시는 사건, 사고를 일으키지 않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담임선생님께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처분 변경까지는 피했지만 6개월 연장이 됐습니다. 그렇게 저는 앞으로 6개월 동안의 생활을 판사님께서 지켜보신다고 하셨고 담임선생님께서도 마지막 기회를 잘 살려서 제 자신이 조금이나마 변화할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하셨습니다. 그제서야 제가 이전에 생활이 안 좋았다는 것을 심각하게 인식했고 이참에 최고 성장단계인 이끄미까지 한 번 달아보자는 목표도 가지며 제가 결심했던 대로 저는 아무 사건사고 없이 지냈습니다. 연장된 날로부터 대략 2달 후인 지금은, 선생님들께 전보다 많이 나아진 모습을 보여드리고 성장단계도 이끄미 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위치까지는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연장되고 1주일 정도는 막막하고 뭐든지 의욕도 없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6개월 연장이 된 걸 받아들이고 최대한 빨리 다시 적응하는 것이 우선이다 싶어서 이것저것 뭐든지 열심히 하고 솔선수범하며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생활하다 보니 어느새 이렇게 적응하고 한마루 소식지에 글을 쓰고 있네요. 효우리 분들도 항상 희망을 가지고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제 목표를 향해서 나머지 남은 기간도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지낼 것입니다. 열심히 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의 생활도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효광원에 오게 되어서 많이 힘들고 막막해서 다 포기 하고 싶어 하는 효우리 분들에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위에 저의 이야기를 보시다시피 저도 아주 힘들고 막막할 때 포기하고만 싶고 앞으로 어찌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랬지만,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지내다 보니 지금은 전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효우리 분들도

참된 기도를 얻으려고 한다면 기도에서 지속적으로 인내하십시오. -성 마가리오.

지금은 막막하기만 하고 이런 단체생활이 그저 힘들기만 하실 텐데, 지내다 보면 효우리 분들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때도 있고 내가 다른 효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또는 누군가에게 먼저 모범을 보이며 솔선수범할 때도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면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단체생활에 적응하고 그저 싫지만은 않으실 겁니다. 효광원에 효우리 분들이 단체생활의 규정을 잘 지키고 실천하면 아무 문제 없이 단체생활은 잘 돌아갈 것입니다. 저도 이전에는 단체생활이 아주 싫고 답답하였지만, 이제는 제가 남에게 도움을 줄 때도 있고 또 언제나 솔선수범을 하고 있네요.

저의 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시가 있는데 이 시를 읽어보고 나니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인데요, 이 세상 어떤 아름답고 빛나는 꽃들도 다 비에 젖고 바람에 흔들리며 줄기를 곧게 세웠는데, 효우리 분들도 지금은 수없는 방황 끝에 효광원에 오게 되었어도 앞으로의 미래에 아무 지장 없이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는 데에는 어떤 문제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효광원에 오게 되었다 해서 포기하기에는 여러분들의 미래는 아직 무궁무진합니다!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항상 꿈과 희망을 갖고 지내시다 보면 목표가 생기실 텐데, 여러분들도 목표를 가지고 퇴소 날에만 목매고 기다리지 마시고 하루하루 일과를 다이어리 같은 데다 적어보며 하루를 돌이켜보면서 내일의 꿈을 향한 날개를 펼치세요!

그리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저의 담임선생님이신 김진수 선생님께 여태껏 진심 담아 하지 못하였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선생님, 제가 효광원 생활 초반에는 책임감도 없고 철없이 행동해서 선생님 속 썩였던 거 정말 죄송합니다. 그 이후로도 종종 사건사고도 있었는데 항상 조언해 주시고 신경 많이 써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비록 정상 퇴소는 못하였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 잘 살려서 일찍 집에 갈 수 있도록 끝까지 포기 안 할게요.

끝까지 선생님께서 제 말 믿어주시고 든든한 버팀목이자 담임선생님으로서 응원해 주셔서 이렇게 전보다 많이 나은 모습으로 변할 수 있었던 거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의 지도 덕분에 사회에서보다 책임감도 많이 기르고 예의도 많이 바르게 되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판사님께서 저를 소환하셨을 때 제가 선생님께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부탁드리면서 다시는 사고 치지 않고 진짜 열심히 생활하겠다고 했던 약속, 선생님 실망시켜드리지 않고 끝까지 지킬게요.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점차 선생님과 같이 오랜 시간을 지내다 보니까 선생님은 저희 반 효우리들을 엄청 아끼시는 게 느껴졌어요. 물론 저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지 저는 선생님이 저를 믿고 아껴주시는 만큼 저도 잘해야겠다 싶었는데 그게 마음처럼 잘 안됐던 거 같아요. 6개월 연장돼서야 정신 차린 게 조금 후회되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선생님이 신경 써주시는 만큼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잘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기회 많이 주시는 분이 아니란 거 잘 알기에 항상 더 긴장 늦추지 않고 지냈던것 같아요. 이번만큼은 진짜 마지막 기회니깐 절대 긴장 늦추지 않을게요. 앞으로 남은 시간도 잘 부탁드리고 항상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선생님!

6개월간 효광원 생활~~~

글 | 윤O민

안녕 효우리 컴퓨터반 "이끄미" 윤O민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신입 동기 효우리들과 입소 인사 하던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6개월이란 시간이 훌쩍 지나 이 자리에서 퇴소 인사를 하고 있네요. 저를 끝까지 믿고 지지해준 저희 아버지같은 선생님 장승수 선생님 진심으로 감사했고 사랑합니다. 선생님은 매사 저에게만 차갑게 대해 주셨지만 속으로는 누구보다 따뜻하고 좋은신 선생님이자 최고의 지도자세요. 나가서 선생님이 싫어하는 문신, 범죄 안하고 자주 연락드리겠습니다. 이 외 저를 검정고시라는 큰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신 정주상 선생님, 정재용 선생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덕분에 검정고시도 합격하고 나가서 뜻깊은 효광원 생활이 되었던거 같아요. 이외 모든 효광원 선생님들 친근하게 대해 주시고 6개월 동안 신경 많이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짧을 거 같지만 긴 제 6개월 효광원 생활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가정법원에서 5 · 6호 처분을 받고 한승우 선생님과 첫 인상이 원장님인줄 알았던 김형수 선생님과 함께 스타렉스를 타고 이곳 효광원에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고 적응도 하기 힘들었지만 효광원에는 다행히도 아는 효우리들도 있고 신입 멘토 덕분에 그나마 적응이 빨리 되었습니다. 열심히 신입 생활중 신입 멘토가 모닝미팅이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 성장단계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입반 때부터 성장단계에 대해 욕심이 생겼고 2주간 신입 생활을 마무리하고 3층 10호실 본방으로 배정 받게 되었습니다. 신입반에서는 본방이 낯설어 보였는데 막상 본방 효우리들은 착하고 유쾌한 효우리 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효광원 프로그램에 서서히 참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제 생각보다 빠르게 성장단계가 하나씩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그 위치에 맞게 행동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곳에서 삼겹살 파티, 오목 · 장기 대회, 줄넘기 대회, 철권대회, 두드림 등 여러 프로그램을 참여하며 의미있는 또한 반성하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효우리 여러분들도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이곳에서 하나라도 얻어간다는 생각으로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6개월이 6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퇴소를 하면 검정고시를 취득하여 고등학교에 입학해 성실히 학업을 이어나갈 것이고 한식, 양식, 중식 자격증을 취득해 제 꿈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호관찰과 야간전화를 잘 받고 법원과 경찰서는 다신 안 좋은 일로 가지 않을것이며, 17년간 제대로 못해본 효도 또한 하면서 성실히 살아갈 것입니다. 그럼 저는 이만 효광원이 아니라 저희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기도를 얻으려고 한다면 기도에서 지속적으로 인내하십시오. -성 마가리오

2021 기획사업 I

(나눔과꿈) 청소년 자립지원 및 지역사회 소외계층주거환경 개선사업(더블하트 또바기)

지원기관	삼성전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업목적	청소년들에게 도배기술 습득을 교육하여 자립을 지원하고, 습득된 도배기술을 활용한 지역사회 소외계층 어르신 가정에 찾아가 도배와 장판, 청소를 지원하는 자원봉사 개념의 프로젝트.
사업기간	2021년 1월 ~ 3월
사업대상	보호치료시설 효광원에 입소 중인 보호소년

2021 기획사업 II

청소년과 원가족의 행복한 추억만들기 여행프로젝트(위드캠프)

지원기관	재단법인 바보의나눔
사업목적	가족기능 강화프로그램인 위드캠프 참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호자들의 캠프참가 의지를 고취시켜 가족기능 회복과 강화를 목적으로 위드캠프 참가 보호자에게 소정의 교통비를 지급하는 사업.
사업기간	2021년 1월 ~ 12월
사업대상	보호자특별교육명령 대상자(보호청소년과 보호자) 또는 자발적 참여자(보호청소년과 보호자)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고통을 덜 받을 것입니다. 올바른 길로 가는 작은 일들은 기도하고 사랑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막의 은수자 까를로 까레또

2021 기획사업 III

밥상머리 작은기적 요리교실

지원기관	한끼 100원나눔운동본부
사업목적	비행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기본적인 요리 방법을 습득하여 끼니를 거르지 않게 함으로 건강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고, 부모에게 의지하지 않고, 반대로 생계를 책임지는 바쁜 부모를 위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사업기간	2021년 1월 ~ 12월
사업대상	보호치료시설 효광원에 입소 중인 보호소년

2021 기획사업 IV

특수차량 25인승 버스 지원사업

지원기관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업목적	2016년부터 3년차 지원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재원아동들에게 사업특성을 반영한 교통수단을 제공하여 대상자들에게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및 가깝고 편안한 복지서비스로 삶의 질을 높이고 효광원 보호치료사업 수행에 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
사업기간	2021년 1월 ~ 12월
사업대상	보호치료시설 효광원에 입소 중인 보호소년 또는 보호소년의 보호자

지혜는 진리 속에만 존재합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

2021 기획사업 V

정신·심리장애아동 치료비 지원 사업

지원기관	대전광역시, 대전아동복지협회
사업목적	심리·정서·인지·행동상의 어려움이 있는 시설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 및 통합사례관리 개입을 통해 아동의 문제행동을 개선하고, 더불어 아동의 원가족, 시설종사자 및 지역사회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을 통해 아동 복지서비스 질 향상 및 아동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함.
사업기간	2021년 1월 ~ 12월
사업대상	보호치료시설 효광원에 입소 중인 보호소년

당신을 갈망할 때 찾고 찾을 때까지 갈망하며 사랑할 때 찾아내고 찾아낼 때 사랑하게 하소서. -성 안셀모

효광원 주요 프로그램

01 동계·하계방학 레포츠데이

보호치료시설 효광원에서 실시하는 동계·하계방학 레포츠 활동 프로그램. 보호소년들에게 여가와 휴식을 제공함으로써 스트레스 해소와 건전한 레저 스포츠 및 취미 활동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방학 프로그램.

❖ 매년 7월 ~ 8월(하계방학), 12월 ~ 1월(동계방학)

02 海바라기 캠프

국립청소년해양센터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해양과 해양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관련 지식을 배양하며 관련된 꿈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동시에 현장체험 활동으로 재원 아동들의 심신 단련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2박 3일간 진행하는 해양 힐링 캠프.

❖ 매년 1월, 2월 중 국립청소년해양센터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

03 국토종단 및 횡단

심신의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강인한 정신력을 배양하고 건전한 사회인의 자세 등을 배워 보호치료 목적 달성에 기여함. 동시에 보호소년들에게 자신감을 향상하기 위한 체험형 프로그램.

❖ 연간 2회 실시 2박 3일(5월, 10월)

04 위드 캠프(WITH CAMP)

법원으로부터 교육이수 명령을 받은 보호소년들의 보호자가 효광원에서 진행하는 1박 2일 보호자 캠프를 통해 교육이수와 함께 캠프를 통한 가족관계 회복을 기하는 프로그램.

❖ 매월 1회 1박 2일간 실시

05 대전학원강사연합회 학습지도

고입·대입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보호소년들을 대상으로 검정고시 대비 기초학습 지도하는 프로그램.

❖ 연중 과목별 주 1회

06 겨자씨 검정고시 학습

충남대학교 대학생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보호소년들의 검정고시 대비 학습지도 프로그램.

❖ 연중 주 1회

07 어머니와 함께하는 요리교실

균형 있고 영양가 높은 수제간식을 함께 만들며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과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프로그램.

❖ 매월 주 2회

거룩함은 행복하게 사는데 있습니다. -성 요한 보스코

효광원 집단 상담 프로그램

01 도예치료

도자기를 직접 빚는 작업을 통해 청소년의 자기존중감과 강점을 고양하고 우울, 불안, 공격성을 개선하고 회복하게 함. 또한 퇴소 이후 가정, 학교, 사회의 적응과 재범예방 및 성인범죄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프로그램.

❖ 연간 2회 실시(6월, 10월)

02 미디어테라피

미디어 테라피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숨겨왔던 자신의 모습을 찾아 과거와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심리정서 수련으로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 연간 2회 실시(3월, 9월)

03 성교육 치료집단

성경험 또는 성관련 위험군을 대상으로 집단활동을 실시하여 왜곡된 성의식과 이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이 정립되도록 지지하는 치료프로그램.

❖ 연간 2회 실시(3월, 9월)

04 금연치료

금연지원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내 금연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흡연율 감소 및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프로그램.

05 도박중독 치료 집단

도박 폐해를 최소화하고 학교 밖 고위험 청소년에게 도박행동 인지, 정서·욕구 측면에서 어떠한 결과를 유발하는지 다양한 활동을 통해 경험하도록 안내하여 퇴소 후 맞이하게 될 고위험 도박 상황에 올바른 대처를 할 수 있는 기본역량 강화 프로그램.

❖ 연간 4회 실시

06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두드림(Do Dream)

꿈:드림, '꿈을 드림'(드리다의 명사형)이라는 중의적인 표현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주는 프로그램.

❖ 연 3회 실시(5월, 8월, 11월)

07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주관 'CAP+'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찾아 진로고민을 해결하고 본인의 희망과 적성에 맞는 양질의 취업지원이 되도록 하는 체험형 프로그램.

❖ 연 2회 실시(6월, 10월)

효우리 이모저모

우리 효우리들이 효과원을 통하여 사랑과 희망을 배우고
하느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기를 기도드립니다.

독후감 상장 수여식

삼겹살파티

소방안전 교육 실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소외계층 주거개선 사업

동계방학 프로그램 줄넘기 대회

효우리 스타필드 개장식

cap+ 프로그램 실시

외부강사 인권교육 실시

날마다 쉬지 않고 조금씩 주님께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 이것이 성인이 되는 비결입니다. -가경자 알베리오네

효광원 활동모습

1월

01.07 생일자 파티

01.13 산내농협 사랑의 쌀 나눔행사

01.22 동계방학 프로그램(줄넘기)

2월

02.02 대전교육청 교육감방문

02.06 대구가정법원 물품후원

02.09 계룡건설 물품후원

02.10 대전 시청 시장 및 직원방문

묵주의 기도는 단순하고 깊이가 있어 모든 기도 중에 제일 훌륭한 기도이며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교황 바오로 6세

Photo

02.16 돈보스코 직업전문학교 방문 설명회

02.24 교직원 자녀 장학금 수여식

3월

03.08 월요조회

03.17 나눔과 꿈 주거환경 개선사업

03.26 세례식 사진

4월

04.05 서울가정법원 방문

04.07 대전가정법원 방문

이성의 권고에 귀 기울이고 늘 그 빛과 이끄심을 따라야 합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

효광원 활동모습

4월

04.07 삼겹살 파티

04.08 나눔과 꿈 주거환경 개선사업

04.16 효우리 스타디움 개장식

04.21 두드림 프로그램 실시

04.23 대전아협 심리치료 실시

04.30 외부인권강사 교육

5월

05.13 삼겹살파티

05.17 성년의날 행사

당신을 갈망할 때 찾고 찾을 때까지 갈망하며 사랑할 때 찾아내고 찾아낼 때 사랑하게 하소서. -성 안셀모

Photo

05.25 밥상머리 요리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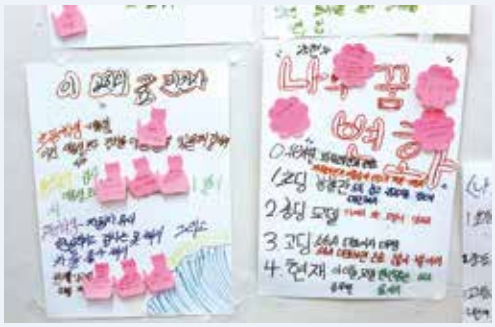
05.26 아산재단 현장방문

05.27 나눔과 꿈 우수기관 선정패 전달식

05.29 도배반 실습사진

6월

06.10 cap+프로그램 실시



06.10 cap+프로그램 실시

06.15 소방안전교육

06.25 애견치료 프로그램

참된 기도를 얻으려고 한다면 기도에서 지속적으로 인내하십시오. -성 마가리오

효광원 활동모습

6월

06.28 교구 신입직원 시설견학

06.29 광주가정법원 판사방문

착한 일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생각하는 데는 어른이 되십시오. -성 바오로 사도

따뜻한 손길 아름다운 마음

효광원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나라의 미래인 청소년들을 사랑하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일하는 종사자들과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예쁜 아이들을 위해 후원해 주신분들의 정성을 이곳에 올립니다.

2021년도 상반기 후원금 내역

1월	5일	최윤영
	6일	김수영
	8일	정준섭 신부님 김도원
	9일	김왕수
	11일	코밴아이러브피플
	12일	장윤정(이환희)
	20일	신혜영
	21일	주혜진
	22일	홍성 성당
	24일	이경훈
	25일	강아영, 김 현
	26일	이룸스틸(추성호)
2월	1일	김현주(이성훈)
	2일	이형석
	5일	김소현
	8일	김수영, 김도원
	9일	코밴아이러브피플
	10일	노기용, 노미자 장윤정(이환희)
	11일	김왕수
	19일	이경훈, 신혜영
	22일	주혜진
	25일	강아영, 김 현 대전사회복지협의회
	26일	이룸스틸(추성호)
3월	2일	김현주(이성훈), 이형석
	5일	김소현, 노미자
	8일	김도원
3월	10일	코밴아이러브피플, 원홀딩스
	12일	이경훈
	13일	김왕수, 장윤정(이환희)
	17일	유천동 성당
	19일	신혜영, 주혜진
	23일	이승민
	25일	강아영, 김 현 이룸스틸(추성호)
	30일	김현주(이성훈) 대전사회복지협의회
4월	2일	이형석
	5일	김소현
	8일	김도원
	11일	심재광
	12일	코밴아이러브피플
	14일	김왕수, 이경훈
	15일	김양순
	16일	이승민
	20일	신혜영
	21일	주혜진
	23일	김 현
	26일	강아영
	28일	대전사회복지협의회
	29일	이룸스틸(추성호)
	30일	성민태, 김현수, 이협수 홍준원, 김현주(이성훈)
5월	3일	이형석
	6일	김소현
5월	8일	노미자, 한정현주교님
	10일	김도원, 장윤정(이환희) 코밴아이러브피플
	11일	김왕수
	16일	이경훈
	20일	신혜영
	21일	주혜진
	22일	이승민
	25일	강아영, 김 현
	31일	김현주(이성훈), 이룸스틸(추성호)
6월	2일	이형석
	3일	대전사회복지협의회
	7일	김소현
	8일	김 원
	10일	윤상훈(할머니추어탕), 장윤정(이환희), 코밴아이러브피플
	11일	김지환
	12일	김왕수
	21일	주혜진, 신혜영 이경훈
	25일	강아영, 이승민, 김 현
	29일	대전사회복지협의회, 이룸스틸(추성호)
	30일	김현주(이성훈)

* 상반기 후원금 총액 : **11,930,000원**

지혜는 진리 속에만 존재합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

2021년도 상반기 후원물품 내역

(간식, 부식, 과일, 생필품, 운동용품, 의약품)

1월	3일	성심당
	10일	성심당
	11일	정류장약국, 산내동 행정복지센터
	13일	산내농협
	15일	대전아동복지연합회
	17일	성심당
	18일	대전아동복지연합회
	19일	성심당, 정류장약국
	20일	서울가정법원
	23일	㈜흥일식품
	24일	성심당
	25일	대전광역시청, 정류장약국
	27일	㈜하이촌
	31일	성심당
2월	1일	정류장약국, 대전광역시 교육청
	5일	성심당, 대전 동구청
	6일	대구가정법원
	7일	성심당
	9일	㈜하이촌, 계룡건설
	14일	성심당
	15일	매화떡집
	19일	엔젤유통
	21일	성심당
	25일	엔젤유통
	28일	성심당
3월	3일	합덕성당, 정류장약국
	4일	투썸남대전IC
3월	5일	김현주(이성훈), 성심당, 김기덕(우신철강)
	7일	성심당
	14일	성심당
	21일	성심당
	23일	성심당
	28일	성심당
	31일	제주상회(이규홍)
4월	1일	성심당, 투썸남대전IC
	4일	성심당
	7일	문창동성당, 김광혜(대산포크), 대전가정법원
	8일	대전아동복지협회
	9일	대전광역시청
	10일	김순자
	11일	성심당
	13일	성심당
	14일	합자회사DC
	16일	김순자, 정주상
	18일	성심당
	22일	㈜하이촌
	24일	임종송
	25일	성심당
5월	2일	성심당
	4일	스마일킹
	6일	투썸남대전IC
	9일	성심당
	11일	법동성당
	12일	하늘서적, 대전 동구청
5월	13일	성심당, ㈜하이촌
	14일	제주상회(이규홍)
	17일	성심당
	20일	오리온재단
	24일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 돈보스꼬
	28일	㈜하이촌
	30일	성심당
	31일	성심당
6월	1일	옥계동성당, 성심원
	3일	성심당, 투썸남대전IC
	7일	성심당
	15일	팜스마켓(부여)
	17일	제주상회(이규홍)
	21일	성심당
	30일	성심당

자원봉사자

축구 김정섭 **POP** 김은실, 김영미

이용 자원봉사 최원기, 신승원, 전미정, 황수일, 김경희, 경완수, 김보경, 류예서, 강계화, 이현숙, 박서윤, 김건희

학습지도 최선희, 한진규, 이지연 **어머니와 요리교실 봉사자** 만년동 성당, 도룡동 성당, 판암동 성당 자매님들

대전강사 연합회 이봉환, 정경희, 조혜진, 김기정, 최강, 강선숙, 최경진, 한왕호, 안지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021년 보호치료시설효광원 후원금 세입·세출 총괄내역

- 사 업 명 : 전체
- 자금원천 : 후원금
- 검색기간 : 2021년 1월 1일 ~ 2021년 6월 30일

세입과목			세 입
관	항	목	
후원금 수입	후원금 수입	지정후원금	24,227,500
		비지정후원금	10,970,000
		합 계	35,197,500
이월금	이월금	전년도이월금 (후원금)	99,328,083
법인 전입금			
잡수입	잡수입	기타예금 이자수입	2,510
[세입계]			**134,528,093**

세출과목			세 출
관	항	목	
사무비	기타 운영비	기타 후생경비	157,068
	운영비	제세공과금	300,000
		여비	161,000
		수용수수료	1,750,430
		공공요금	69,070
		차량비	441,400
재산 조성비	시설비	시설장비 유지비	1,320,000
사업비	운영비	생계비	2,567,200
		피복비	2,250,000
		의료비	50,300
		직업재활비	95,800
		특별급식비	727,210
	사업비	사회심리 재활 사업비	10,959,350
		자립지원 사업비	59,141,480
	잡지출	반환금	29,697,931
[세출계]			**109,685,259**

오시는 길

대중교통 이용 시(낭월차고지방향 "e편한세상 아파트"에서 내리면 됩니다)

- 대전역, 중앙시장 정류장 : 511번
- 대전역, 중앙시장 정류장 : 501번(마전방향), 512번
- 대전 복합터미널 정류장 : 501번(마전방향)
- 서대전역네거리 정류장 : 513번
- 정부청사(남문)터미널 정류장 : 108번

자가 운행 시

- 남대전 톨게이트에서 대전역 방면 1.6Km 전방 오른쪽(방음벽 설치) 적벽돌 건물
-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남대전 톨게이트 방면 1Km 전방 왼쪽(방음벽 설치) 적벽돌 건물

보호치료시설 효광원

주소 34704 대전광역시 동구 산내로 1305번길 48(낭월동 399번지)
TEL 042.271.7053 FAX 042.271.5775
홈페이지 www.hyokwang.or.kr E-mail hkw7053@hanmail.net